



連載〔2〕

잃어버린 古代都市

Ⅱ. 人類는 왜 都市를 만들었을까?

왜? 어떻게 해서 인류는 도시를 만들었을까?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그 시대에 맞는 특징있는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部族들이 모여 풀과 나무를 이용한 오막살이 집이나 水上 생활에 알맞는 高床의 초두막, 또는 유목민들의 생활방식에 알맞는 텐트, 혹은 지금도 중국 남쪽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水上部族의 생활 근거지인 물위에 떠 있는 배를 이용한 집, 농경중심의 집단 村落 등은 잘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생활방식에 따라 血族이나 部族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집단생활을 영위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락을 都市라고는 하지 않는다. 최소한 都市라고 한다면 크기도 문제겠지만 部落과 같은 것과는 다른 次元의 것이다.

예컨대 中世 봉건시대에 발달한 城 아래 부락이라든가, 활발한 商易에 의하여 번창한 화란의 마을, 혹은 日本의 堺와 같은 도시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차츰 時代가 지나 近代에 접어들어 발전한 파리, 런던, 뉴욕과 같은 都市 등이 있으며, 로마시대로부터 이어온 이태리의 로마,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푸렌치에나, 베네치아와 같은 찬란한 도시도 있다.

그밖에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유역 같이 산업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대에도 훌륭한 도시는 존재했으며 그것은 무려 2,3천년 이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생각할 때 도시란 반드시 생산의 형태나 역사의 발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또한 영원히 이어지는 것만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도시는 저 우주 속에 떠있는 우주섬(島)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존케 되면서부터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형태를 취해 왔고 이는 사회적인 여건, 즉 정치나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모양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는 이러한 여건과는 달리 인류사상 오래된 어떤 시기에 돌연변이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벌(蜂)이나 개미 따위도 거대한 群生의 집(巢)을 만들고 원숭이와 같이 사회생활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자연계에는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역으로 생각할 때 도시만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古代의 폐허에 서서 보았을 때 확실히 도시는 도시라는 공감을 누구나 갖게 한다. 그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